

“정조 효심 깃든 유적지 보존하라”

법국민연합 ‘대국민 호소문’ ‘대통령에 올리는 상소문’ 발표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서린 세계 유일의 효 문화유적지를 보존하라.”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대왕(1752~1800)의 효성은 남달랐다. 대왕은 사도세자를 위해 용주사를 증장했다. 직접 시묘하지 못함을 죄스러워하며 한해도 거르지 않고 부친 능(용릉)을 참배했고, 봉어해서도 건릉에 묻히기 전 시묘를 위해 용릉보다 낮은 곳에 첫 무덤을 정했다.

정조대왕의 효심의 상징이라 불리는 대왕의 첫 무덤 터는 2007년 용릉 남쪽 아래에서 확인됐다. 인근에서는 정자각 터와 재실(齎室, 묘제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 터가 잇따라 발견됐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가 용·건릉(사적 제206호)을 비롯한 용주사 일대에 대규모 주택단지(태안 제3지구) 건설을 강행하면서, 정조대왕의 효심 어린 유적지들은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국민호소문’과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이 발표되는 등 대한주택공사가 진행 중인 택지개발 계획을 폐지하고 효 문화유적지를 보존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윤건릉분향회 이홍철 고문이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맨 오른쪽은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정조효행유적지보존법국민연합(이하 법국민연합)은 5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조효행유적지 보존 100만 인 서명 동참 대국민 호소문’과 ‘대통령에 올리는 상소문’ 등을 발표했다.

법국민연합 민학기 고문변호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도 용·건릉이 있어 세워졌을 만큼 용·건릉-용주사 일대의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는 크다”며 “조선시대부터 해방후까지 능일대 10리가 왕실소유이며 국유지였다.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주택공사는 당연한 의무를 실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 고문변호사는 “문화재청이 왕릉과 무관한 전문가로 사적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택지개발 강행)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국민연합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주요과제로 채택된 효 문화유적지 보존이 주택공사의 기업이익 보호에 밀렸다”며 “급전 7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을 앞둔 용·건릉-용주사 일원이 아파트 건설공사로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국민연합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구원할 유일한 가치가 효

(孝)라며 “모든 국민이 효행유적지 보존을 위한 서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국민연합은 △세계 유일의 효 문화유적지인 용·건릉-용주사 일원의 보존 △용·건릉-용주사 일대의 효 역사문화공원과 전통 효 문화마을을 조성할 것을 촉구·결의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지구총공생회 대표)을 비롯해 박홍 신부(서강대 이사장),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만섭 前 국회의장 등이 고문으로 있는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최성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대, 불국사 주지)도 5월 6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제4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용·건릉 일원 정조 효행유적지 보존을 결의했다.

한편, 문화재청(청장 이근무)은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조선왕릉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에서 ‘등재권고’로 평가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조종섭 기자

임원전진대회

대불청 23~24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 이하 대불청)는 5월 23~24일 경주 위덕대와 포항에서 전국임원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전진대회에서 대불청은 불교청년문화변혁, 문화 포교 역량강화 등에 주력한다.

박상희 자문위원의 ‘문화포교의 필요성’ 강의를 통해 문화 포교 방향, 불교청년문화변혁과 문화포교역량을 논의한다. 또 6월 27~28일 개최되는 전국불교청년대회 운동경연대회를 대비해 권미아 문화포교위원장의 활동배우기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전국임원전진대회에서는 정기 이사회, 전국불교청년대회 진행 사전 점검 및 답사가 진행된다. 이상연 기자

불교상담심리사

2급 자격 품수식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은 5월 1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불교상담심리사 2급 자격 품수식을 봉행했다.

자격 품수식에는 포교원장 혜종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참가했다.

혜종 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께서 45년간 하신 전법활동은 곧 상담활동”이라며 “상담자로서의 활동은 쉽지 않겠지만 세세생생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보시의 삶을 서원하라”고 당부했다.

계성 스님은 “어려운 상담사의 길에는 문수보살의 지혜, 관세음보살의 자비, 보현보살의 행원, 지장보살의 대원이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급 자격 품수식을 받은 22명의 불교상담사는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전화 상담봉사자로 활동하고 불교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상연 기자

‘생명·생태’ 주제 여름강좌

불광사 ‘불광 숲 학교’도 마련



우희중 교수의 강연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해 쇠고기 파동에 이어 돼지인 플루엔자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심각한 생명 파괴와 변종 바이러스, 핵전쟁, 기후변화, 자원이 고갈 등으로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잠시 불광사(회주 지홍)가 생명과 생태를 주제로 여름강좌를 준비했다.

강의는 근대과학에서 보는 생명과 영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불교 생명관을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생명과 관련된 사회 현안을 예리하게 접근 시도하고 있는 우희중 교수(서울대 치의과대)가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 지도한다. 강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과과학 생명 △연기적 사유와 생태적 사고 △삶의 문제로서의 생명-깨달음의 구조 △불교와 존재 등으로 구성됐다.

불광사는 또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불광 숲 학교’ 프로그램

을 5월 22일부터 6월 26일 매주 금요일 실시한다. △에코맘, 자연으로의 회귀-생태적 삶과 생명생태교육에 대한 제언 △일자리, 들뜬에서 즐기는 과학 △석촌호수 나무 느끼기 △아이와 엄마가 공유하는 올림픽 공원 숲에서 놀자!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 △청량산 숲 보기, 읽기, 답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강의는 정미경 불광생태전임강사(순해설가)와 이세걸 사무국장(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며 선착순 30명 모집한다.

불광사 관계자는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을 접하기 힘든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계획하게 됐다”며 “생명과 자연, 생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고자 한다”고 말했다. (02)417-2551

이상연 기자

신행계시판

●정토회 수련=정토회는 5월 27~31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수련회를 실시한다. 성인 누구나 참가가능하고 수련중에는 묵이나 알리는 보시의 삶을 서원하라”고 당부했다.

●도봉사 3000배 정진법회=도봉사 도봉사는 ‘참 나를 찾는 여행 3000배 철야기도 정진법회’를 5월 23일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진행한다. 이날 정진은 불력회 회장 박종린(탁암) 법사가 집전한다. (02)954-5381

●대중사 차문화 템플스테이=한국 차문화의 다성 초의 선사의 숨결이 어려 있는 해남 대중사에서 5월 31일까지 ‘차문화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1박2일간 차를 수확하고 차를 직접 만들어 스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061)534-5502

●우포다나 사야도 초청 집중수행=푸른 숲과 황토방 선원 강릉 담마선원은 5월 23~29일 우포다나 사야도 초청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좌선, 행선, 일상관찰 수행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20만원으로 선착순 15명 접수. (033)644-1686

‘템플스테이 여행자 보험’ 가입

법륜사, 중앙대 마가 스님 강좌 수강생에 혜택

수강신청 10초 만에 마감되는 대학 강좌가 있다.

바로 중앙대학교 최고 인기강의인 마가 스님(만일사 주지)의 ‘내 마음 바로보기’ 마음공부 교양강좌. 마가 스님의 특별한 마음수련법은 종교를 막론해 20대 젊은이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주는 강의로 올해도 단연 최고 강좌다. 수강생 선원은 5주차까지 스님의 지도로 명상·참선을 하고 2박3일간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 올해도 400여 명이나 수업을 신청해 경기 법륜사(주지 현암)는 4월 24일~5월 24일 체험자들로 만원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단체로 이들을 하는데 있어 안전성 확보가 필

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륜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템플스테이 여행자 보험’을 400여 명 전원을 상대로 체결해 템플스테이를 보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했다.

현암 스님은 “급전적인 지출이 있지만 참가자들의 안전보장이 더 중요해 체결하게 됐다”며 “템플스테이를 더욱 널리 알려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가 스님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여행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참가자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더욱 발전된 템플스테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연 기자

음악천재 모차르트, 의학적으로?

니르바나필 24일 ‘음악, 법의학자 만나다’

음악회가 진화되고 있다. 듣고 감상하는 음악회에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거듭나 의학과 음악이 만났다. 니르바나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5월 24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에서 제2회 정기공연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모차르트’에서 음악과 의학을 접목하는 실험적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공연에서 법의학계의 권위자 문국진 박사(前 고려대 의대교수는 ‘신동’이라는 찬사로도 부를 만큼의 조속한 천재였던 모차르트의 음악과 그의 생로병사를 소개한다. 첫 주제인 ‘귀의 기형이 만든 천재’에서는 150cm의 작은 키에 몸보, 근시, 주먹코, 외이(外耳) 없던

모차르트가 장애를 극복하고 천재가 된 사연을 소개한다.

둘째 주제는 ‘천재 모차르트와 아버지’, 셋째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이상의 분노에 심취해 배설물을 보거나 뉘새를 맡으며 쾌감을 느끼는 분변음욕증(糞便淫慾症, scatolgia)이 있었던 모차르트와 악처 이야기가 전개된다. 마지막에는 150여개의 추측과 학설이 난무하는 그의 사인 등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생로병사와 함께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관계자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영감과 음악적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02)718-4599 이상연 기자

韓·中 불교문화 교류를 위한 한국불교 최초 제2회 중국 선종 육조제

귀의 삼보하우고

본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에서는 세계 선불교 중흥조라 할 수 있는 육조 혜능 대사의 선불교 사상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 전래의 역사성을 바로하기 위하여 중국 광둥성 육조사와 자매결연을 맺어 수계, 전법품수는 물론 불교학문과 전통의례, 의식 등 제반 불교문화 교류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30일 중국 육조사에서 육조 혜능 대사의 선불교 사상을 호국 세계적 통불교를 위해 천년만에 제1회 육조제를 재현했습니다. 이에 양국불교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제2회 육조제를 한국에서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으로 부처님 크나큰 법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에 미친 육조 혜능 대사의 영향은 한국불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에 한국불교계 각 종단 중정예하 고승대덕 큰스님은 물론 모든 불자는 초발심의 자세로 한국 육조제에 입해야 할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이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길 한국불교계 모두의 동참 발원으로 기원드립니다.

- ◆ 주 관 _ 중국광둥 육조사
- ◆ 주 최 _ 한국 육조제 봉행위원회
- ◆ 일 시 _ 2009(불기 2553)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
- ◆ 장 소 _ 서울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홀

행사 및 일정

1. 5월 20일
 - 중국 육조사 대원 방장 스님의 200여 대표단 입국
 - 환영법회를 겸한 한중 불교문화교류협회 창립을 위한 조인식
 - 중국 방문단에 한국측 봉행회 환영패 증정, 환영행사 및 만찬
2. 5월 21일
 - 9시 30분 동국대학교 학술대회 (예정)
 - 14시 한국 육조제 봉행 (올림픽 공원내 올림픽홀)
 - 육조선사 건당식 (법원, 가사, 바루) / 건당식은 행사 당일 또는 익일 희망자 추천 접수, 이력서 준비 전화요망.
3. 5월 22일
 - 부산 환영 법회
4. 5월 23일
 - 부산 육조선원 개원 헌판식

참여단체 및 후원단체 (무순)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사)대한불교조계종 국제불교 교류연맹,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CBS 108TV 연합불교방송, 승왕청, 법왕청, 세계불교고승연합, 대한불교법종단원로지도자연합회, 국국사단, 일불신문사, 중국송산소림사한국문화원, (사)평화누리불교연대, 불교TV 등 다수 단체

◆ 연락처 : 종로문화원 -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011-285-68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03호 (서울 종로사무소)
용 화 사 - 전화 033)761-2556 / 팩스 033)761-3200

한국 육조제 봉행위원회 위원장 석연화